

축 사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치매로부터 자유로운 고흥을 위한 치매안심요양병원 준공식의 자리에 함께 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치매안심요양병원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송귀근 군수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뜻 깊은 자리에 함께해주신 기관·사회단체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치매는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일이 되었습니다. 치매환자가 없는 가족을 찾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환자의 고통도 이루 헤아릴 수 없지만, 가족들의 고통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것이 치매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고령자의 질병에서,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치매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치매안심요양병원의 준공은 치매를 사전에 예방하고 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문제에 대처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아무쪼록 치매안심요양병원이 우리 군민들이 치매에 안심하고 기댈 수 있는 곳, 내 가족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치매 치료의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우리 군 의회에서도 치매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치매 걱정 없는 고흥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치매안심요양병원 준공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